

01. ① 02. ③ 03. ② 04. ⑤ 05. ① 06. ④ 07. ④ 08. ③ 09. ② 10. ②
 11. ⑤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④ 17. ② 18. ⑤ 19. ① 20. ④

1. 공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공자이다. 공자는 사랑의 정신이자 완성된 인격체의 아름다운인 인(仁)의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인은 효제와 충서 등을 통해 표현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석가모니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③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④ 노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⑤ 목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2.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케인즈,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즈는 정부가 다양한 공공사업을 펼치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문제도 완화하고 국민이 기본적인 실제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유효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C).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케인즈는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ㄴ. 완전 고용을 위해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하이에크가 아니라 케인즈의 입장이다.

3. 노자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도는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이 도에서 생겨나고 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즉 도는 만물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 운행의 원리라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노자는 도는 무위(無爲)이기 때문에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노자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인해 도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공적과 명예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노자는 도 자체는 사물이 아니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⑤ 노자는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인 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4. 모어의 이상 사회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모어이다. 모어가 제시한 이상 사회인 유토피아에서 개인은 여가 시간에 정신적 오락이나 교육, 연구 등을 자유롭게 누린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유토피아는 최소한의 법률만 있는 사회이다.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조항으로 사람을 울아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②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따라서 업적에 따라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가 필요한 만큼 재화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다.
- ③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는 재화가 부족하지 않고 풍부하다. 공동의 창고가 가득 차 누구도 자기가 사용할 물건이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회이다.
- ④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도 사유 재산을 갖지 않아서 모두 공공의 임무를 열심히 한다.

5. 플라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각자의 타고난 성향과 소질과 덕에 따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플라톤은 방위자가 용기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플라톤은 생산자가 가져야 할 덕, 즉 절제의 덕은 방위자와 통치자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층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6.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하늘이 마음에 부여한 이치, 즉 마음의 본체를 성이라고 보고, 성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라고 보았다(L).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격물이라고 본 주희와 달리, 왕수인은 사욕을 제거하여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격물이라고 보았다(R).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주희와 왕수인은 모든 인간은 양지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ㄷ. 주희는 지와 행의 경중을 논하면 지보다 행이 더 중요하다고, 즉 경전 공부를 통한 앎보다 도덕적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7.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벤담이다. 벤담은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고통의 소멸 상태라고 보고 소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벤담이 에피쿠로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만이 아니라 벤담도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다.
- ② 에피쿠로스는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은둔적 삶을 추구하였다.
- ③ 벤담은 사회적 쾌락이 개인의 쾌락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벤담만이 아니라 에피쿠로스도 행복한 삶을 위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8. 칸트와 갈통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갈통이다. 칸트는 평화 연맹에 속해 있는 개별 국가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다고 보았다(ㄱ). 갈통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갈통은 목표로서의 평화와 함께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고 보았다(ㄴ).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ㄷ. 갈통은 평화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도 영구 평화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 연맹의 창설과 국제법, 세계 시민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9.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보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주의를 지향하였다.(ㄱ) 순자는 공자, 맹자와 달리 하늘을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고, 하늘은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감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순자는 천인분이[天人分二], 즉 하늘과 인간은 분명하게 둘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늘이 성인의 도를 따르는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
- ㄷ. 하늘이 부여한 마음, 즉 선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순자가 아니라 맹자의 입장이다.

10. 에픽테투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에픽테투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에픽테투스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즉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행복한 사람은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자를 행복한 자라고 여기는 것은 에픽테투스가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은 지상의 삶, 즉 현세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행복은 내세의 천국에서 신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행복은 신을 사랑하는 인간만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⑤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하나가 되는 데 행복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에픽테투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다.

11. 사르트르와 듀이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사르트르, 을은 듀이이다. 사르트르는 보편적인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한 근대 이성주의를 비판하며, 다양한 문제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아니라 개별적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사르트르는 인간은 먼저 실존한 다음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 ② 사르트르는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데,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불성실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강조하였다.
- ③ 듀이는 인간은 끊임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을 습득하고, 습득한 경험을 축적해 가는 존재이며 이를 통해 지식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 ④ 듀이는 지적성 탐구를 통해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도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12. 홉스, 마르크스, 루소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홉스, 을은 마르크스, 병은 루소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린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라고 보았다. 따라서 루소의 입장에서 홉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마르크스는 국가는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았다.
- ② 흄스와 루소는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 ③ 루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도 사유 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 ⑤ 루소는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흄스는 국가의 주권은 리바이어던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13.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아퀴나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각각의 것들이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을 갖는 것은 그것들이 신의 본성을 특정하게 표현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자연적 본성의 요구인 자기 보존은 선이 될 수 있다.
- ② 아퀴나스는 자기 보존 성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도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라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세계는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유 의지가 없다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도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유 의지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의 의도적 계획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4. 이이와 이황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황은 이는 기를 주재하고 명령할 뿐 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기가 이를 이길 수 없다고 보았다.(ㄷ) 이이와 이황은 이와 기는 서로 현실에서 분리될 수 없고, 개념적으로 섞일 수 없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이이는 칠정 가운데 선한 감정인 사단을 확충하면 타고난 사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ㄴ.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성이 아니라 정이라고 보았다.

15. 흄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타인의 유덕한 품성과 같이 사

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쾌감을 느끼는 원리는 공감이라고 보고, 공감을 도덕성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ㄱ). 흄은 이성만으로는 어떤 의지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고, 어떤 의지 활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인 수단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흄에 따르면 도덕은 어떤 행위나 사물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쾌감, 즉 시인의 감정이다.
- ㄹ. 흄에 따르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행위의 동기이자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이다.

16. 정약용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사단은 사덕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고, 단시설을 주장한 성리학자들과 달리 단시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단 중 하나인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은 사덕 중 하나인 인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 ② 정약용은 수양의 궁극적 목표를 형구의 기호가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인 영지의 기호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인의예지, 즉 사덕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일 뿐이라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은 인의예지라는 덕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17. 칸트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려면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칸트에 따르면 정언 명령은 보편화의 정식, 인격의 정식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 ③ 칸트에 따르면 정언 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은 자연의 모든 사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다.
- ④ 칸트에 따르면 가언 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이 아니라 조건부 명령이며 그런 행위만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칸트에 따르면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으로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명령한다.

18. 대승 불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대승 불교 사상가인 용수이다. 용수는 만물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자성이 없고 공이 아닌 것이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용수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만물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 ② 용수는 만물이 인연으로부터 생겨나며 자성은 없다고 보았다.
- ③ 용수는 불변하는 실체는 없으며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고 보았다.
- ④ 용수는 만물의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19.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악한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뿐만 아니라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서도 악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ㄱ). 소크라테스는 덕은 곧 지식이라고 보고, 좋음에 대한 앎을 가진 자들 모두는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은 단지 좋음에 대한 앎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좋음에 대한 앎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습관화할 때 비로소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 된다고 보았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소크라테스는 각 개인은 자발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 ㄹ.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도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20.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 최익현, 을은 동학 사상가 최시형이다. 최시형은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을 거부하며 만인은 평등하다고 보았고, 후천 개벽이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익현은 올바른 것, 즉 성리학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키고 사악한 것, 즉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배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최익현의 입장에 비해 최시형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X, Y는 높고 Z는 낮다. ㉞이 정답이다.

정답 ④